

전원석방!
수배해제!



후원회소식

후원회소식 · 제3호 · 1989년 9월 29일

1989년 9월 29일 후원회소식 제3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발행인 / 문익환
주소 / 종로구 창신2동 651번지
29호 3동 1반
전화 / 763-2606, 764-1684

국가보안법 철폐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지난 8월 26일 오후4시 고려대학 교 민주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대회'가 약 천여 명의 시민, 학생, 구속자가족 등이 모인 속에서 개최되었다.

천주교 공대위, 전국노운협, 전대협, 민가협, 미술인공대위의 주최로 열린 이 대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제반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배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렸다. 서경원 의원 사건에 대한 민가협의 입장 발표, 민미연 고문사건 폭로, 전교조에 대한 문교부 당국의 단임을 빌표하고 마창노련의 노동자가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보고하였다. 특히, 간첩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김태룡씨의 동생 김태일씨가 나와서 그 간첩사건은 현정권이 국



가보안법으로 조작한 사건임을 말했을 때 그곳에 모인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대회를 출발로 하여 제민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결의하고 먼저 '백만인 서명대회'를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6공화국이 출범한 아래 5공화국보다도 두 배가 넘는 구속인사가 생겨나고 국가보안법의 남발로 인하여 구속된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남용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쓰는 민주인사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만큼 기로지 못한 북녘(당)을 바로 알고 동포를 만나려 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는 날로 높아만 간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창구단일화라는 얕팍한 논리로써 일체의 자주적 교류를 가로막고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용공

이요 이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서적을 출판하고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고 만화나 그림 그리는 것도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가는 정부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통일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양심수의 전원 석방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단순히 법 하나의 개폐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고, 우리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민주화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할 때이다.

먼저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우리 가족, 이웃, 친척 등 주위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우리의 힘을 결집하여,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고 옥에 갇혀 있는 천여 명의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자.

문 목사님 8차 공판을 보면서

지난 9월 18일에 열린 문익환 목사님 8차공판에서 사법부는 자신이 권력의 시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변호인단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정상학 판사는 문익환 목사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하였다.

재판부는 8차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증인채택의 경우도 검찰쪽에 유리한 증인과 증거만을 인정하고 피고와 변호인이 채택하고자 하는 증인과 증거는 기각시켰다.

양심수 후원회 회장님인 문익환 목사님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분으로, 현 정권은

'5공판사'라고 불리워지는 정상학에게 사건을 배정함으로써 문 목사님의 방북을 철저히 매도하고 거세게 일어나는 통일운동을 억누르려고 한 것이다. 안기부의 밀실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진행되는 재판이 결코 공정할 수 없으며, 변호인단의 재판부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부를 존속시키는 것은 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문 목사님의 방북이 결코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더이상 사건을 왜곡호도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사안법출소자 편지

민가협 여러분들께 드림

무덥던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주보안감호소에 있다가 지난 8월 8일 출소하여 이곳 부산시 사하구 영생노인복지원(속칭 영생양로원)에 의탁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주보안감호소에 있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편지조차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사과하오며 깊은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양로원에 도착한 후 '평화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식주에 만족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이 만족해 하는 것은 이 곳이 부산시의 변두리의 변두

리로써 등산로 중간쯤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온 지 사흘째인 8월 10일부터 운동으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3시반이면 근처에 있는 대자원(큰절 大慈院)의 큰 종소리에 잠이 깨어 등산준비를 하고 4시에 출발, 멀지 않은 약수터에 가서 3ℓ의 물통에 약수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 고 5시 30분이 되지요. 이와같이 저의 하루 생활은 등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건투를 빌면서 이것으로 각필하겠습니다.

1989년 8월 29일 영생노인복지원에서 최남규

사회안전법 출소자 현황

(9월 7일 현재)

7월 7일 ○윤기남(64세, 27년 복역)
○황용갑(65세, 34년 복역)
7월 25일 ○한백열(70세, 23년 복역)

○배동준(67세, 29년 복역)
7월 26일 ○윤희보(72세, 26년 복역)
○전창기(71세, 29년 복역)

8월 7일

- | | | |
|-------------------------|-------------------|--|
| ○김해섭(65세, 34년 복역) | ○김영승(55세, 36년 복역) | ○최공식(66세, 34년 복역) |
| ○함세환(57세, 34년 복역) | ○김용규(69세, 32년 복역) | 9월 7일 ○임방규(57세, 34년 복역) |
| ○이두균(64세, 29년 복역) | ○안희숙(61세, 29년 복역) | ○김권식(68세, 원형기 ?, 감호기간 14년) |
| 8월 8일 ○이세근(64세, 29년 복역) | ○송상준(64세, 33년 복역) | * 9월 7일 현재 13분이 거쳐 가 마련되지 않아 석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
| ○금재성(63세, 29년 복역) | ○권낙기(42세, 18년 복역) | |
| ○최남규(77세, 34년 복역) | ○김태수(64세, 29년 복역) | |
| 9월 5일 ○고광인(55세, 33년 복역) | ○고광인(55세, 33년 복역) | |

▶ 논단

참교육의 터전, 전교조

나는 올해 3月, 주변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푸른 꿈을 엮어 보겠다는 소박한 열의만을 갖고 교단에 서게 된 풋나기 신임교사이다. 아직껏 주변근부 한번 못해보고 겨우 경력 6개월로 해임이 되어버렸다. 처음 전교조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교육의 문제들을 경험 속에서 빠져리게 느끼지도 못했었고 단순히 교사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 지향하는 바도 참 좋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나는 교장실에 들락거리고 집으로 경찰서 정보과장의 전화가 걸려오는 시달림을 받아야하는 문제교사가 되어버렸다.

학교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교장선생님은 내게 “송선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물었다. 그렇다. 나는 전교조 건설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였다.

현재 1,500여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행위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어겼다는 딱지가 붙어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교장은 징계 내신서(징계를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올렸고 교육감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교위내의 징계위원회에서는 8~9명의 징계위원들이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이런 징계사태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모두가 직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징계위원회의 어떤 장학사는 “이런 교사들이 모두 나가면 교육계는 어떻게 되는거냐?”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실제로 개개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7월 1일 「조합

원 전원에 대한 파면·해임」이라는 발표가 모든 신문의 제1면의 머릿기사를 장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징계위원회는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교육계의 유례없는 대학살을 누가 자행하고 있는가? 교육내부의 개혁을 제기하는 우리들에게 왜 경찰과 구청직원, 심지어는 시청직원들까지 찾아와 탈퇴를 강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결정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나에게 교육의 자주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지를 공부시켜 주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모두들 교육의 자주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은 힘없는 교사가, 또 힘없는 학부모,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체념해버리는 것 같다.

심지어 교사들의 출근을 막던 일부 학부모들도 참담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성토하고 입시와 경쟁교육이 아닌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무슨 힘이 있으느냐?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시원을 한다.

그러나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참교육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주체들(교사·학생·학부모)의 바로서기와 주체로서의 올바른 활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육제도의 개선,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구체화되는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사들은 전교조를 결성했다. 앞으로 전교조의 사수과정은 곧 교육의 일주체인 교사들의 바로서기의 과정이며, 학부모 학생들의 바로서기의 과정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다.

우리모두 전교조를 사수하여 참교육의 실현에 적극 동참하자!

송유정(강신중교사 후원회 회원)

사 설

법정에서 선고받은 10년, 20년의 장기형을 다 살고난 다음, 다시 재판절차도 없이 「감호소」에 갇히어 무작정 징역아닌 징역을 살던 35명의 노인들이 10월에 모두 출소한다.

출소하면 반겨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석방되었고, 가족이 없어 양로원이나 생활보호소 등으로 가게되는 분들만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년 징역, 감호15년, 35년을 세상과 연이 끊긴 15척 담 안에서 4급 수의 생활을 이어온 분들. 올해로 평균연령이 66세. 이제는 노인이 되어 병들고 불구의 몸인 이분들이 한창 혈기왕성한 30여세에 수감되어 청장년기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가족으로부터의 면회도 끊긴 채 독방에서 독서조차 금지된 반인륜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75년 이래 독재정권에 의해 짓밟힌 128명의 감호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역대의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이란 법의 폭력으로 반독재 자주화운동을 철저히 탄압해왔다. 20년의 징역도 모자라 생업에 전력하는 이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무수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기를 15년이었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법적 폭력의 원인을 민족분단의 비극이라거나, 남과 북의 대결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무관심이 더 큰 원인이라 하겠다. 오랜동안의 이 엄청난 인권유린에 동시대인으로서의 무책임함은 통렬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 석방즈음해서 때늦은 반성으로나마 이분들의 문제에 우리 모두의 관심을 모아 보자.

가족이 있어도 연좌제 등 악법의

폐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고, 각종 불이익과 감시에 의해 겹친 생활고로 오히려 출소에 임박해 갖가지 걱정부터 앞서는 실정이다. 마음처럼 당장 함께 오손도손 살 방한 칸도 변변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마지막 남은 10여 명의 연고없는 분들과 이미 출소해서 양로원 등에 기거하는 분들의 생활问题是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로써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고문후유증이나 또는 열악한 감호소 환경으로 인해 팔다리가 불구이거나 위장병이나 고혈압, 백내장 등의 노환이 겹친 경우를 생각하면 의료부분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락한 주거공간의 마련이다. 가족적인 따뜻한 환경이 무엇보다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칠순을 바라보는 이 분들이 비록 늦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50년 전쟁후의 참담함에서부터 21세기 첨단과학시대 사이의 괴리를 메워 동시대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의 법적 탄압이나 이념공세, 공권력에 의한 가정파괴가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분들의 여생을 노인들께 알맞은 환경과 의식으로 보살펴드리고, 분단의 희생양으로 감내해온 반평생의 지옥같은 옥고의 악몽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존경받는 어른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모두의 할아버지뻘이기도, 사돈의 팔촌으로도 인연이 있는 바로 우리가 모셔야 할 노인들이시다.

사회 각계 관심있는 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주소변경 : 서울 종로구 창신2동 651번지 29호 3동 1반
개구장이 어린이방 2층
기존건물이 도시계획상 철거
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잊은 이사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이오니 자주 연락 바랍니다.
2. 재정보고 (6/1~8/31)
전기이월 1,560,120

수입	3,002,000	5. 간사월급(15만원×3개월) 450,000
6월 회원회비	1,844,000	6. 비품구입 31,500
7월 회원회비	602,000	7. 기타 잡비 50,000
8월 회원회비	556,000	8月末까지잔고 2,949,860
지출	1,611,860	3.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회비로 이번 추석에 장기복역 양심수들에게 5,000원씩 영치금을 넣어드렸습니다. 교도소측에서 허용하지 않아 일부는 차입하지 못했습니다.
1. 영치금, 영치품	571,160	
2. 교도소 면회출장비	157,000	
3. 소식지, 전교조자료구입	198,000	
4. 국내외소식지, 자료발송비	154,200	

◀ 여러분의 정성을 모집합니다. ▶

사회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출소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거처
마련 등을 위해 여러분의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작은 성의나마 출소하신 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전화 763-2608, 764-1684

이용하실 송금 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 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
국민은행 006-01-0498-860 ()
국민은행 006-01-0498-860 ()
농협 053-01-112692 ()
※ 송금하신 후에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